



여름에도 쓴다

2025년 우리들의 여름방학 글쓰기

강은서 강하연 곽아인 김 산 김서준 김연우 김지우 서지후
여수민 윤하준 전지환 조연서 주현준 최주희 한건영

인천 부마초등학교 친구들의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여름에도 쓴다

발행일 | 2025년 8월 18일

글·사진 | 강은서 강하연 꽈아인 김 산 김서준
김연우 김지우 서지후 여수민 윤하준
전지환 조연서 주현준 최주희 한건영

지 도 | 김신(독서교육전문가)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독서문화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투리로21
전 화 : 032-363-5013
누리집 : <https://lib.ice.go.kr/shintree>

제 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 S B N | 979-11-94496-30-4(75810)

-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시민저자학교7기 새얼백일장 준비를 위한 「여름방학 글쓰기 특강」 참여 학생들과 함께 제작된 책입니다.
- * 이 책의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여름에도 쓴다
2025년 우리들의 여름방학 글쓰기

강은서 강하연 곽아인 김 산 김서준
김연우 김지우 서지후 여수민 윤하준
전지환 조연서 주현준 최주희 한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 차례 |

1. 나의 추억의 판다 인형 / 강은서	5
2. 코딱지 학교 / 강하연	6
3. 자녀의 마음 / 곽아인	7
4. 알라딘 / 김 산	8
5.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 김서준	9
6. 임금님은 왜 그럴까? / 김연우	10
7. 반려동물 복제, 하실 건가요? / 김지우	11
8. 진짜 수달이 / 서지후	12
9. 가족은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여수민	13
10. 내 ‘동생’ / 윤하준	14
11. 나의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 / 전지환	15
12. 진정한 부모의 소원 / 조연서	16
13. 반려동물 복제는 안 된다! / 주현준	17
14. 무제 / 최주희	18
15. 강아지 복제 독후감 / 한건영	19

나의 추억의 판다 인형

부마초 6학년 강은서

강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힘들었던 연우처럼 저도 저의 애착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여행 중이었는데 호텔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인형은 4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이라서 더욱 슬펐어요. 연우가 뭉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복제한다고 했을 때, 강아지(뭉키)의 인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도 갔어요.

하지만 그건 윤리에 맞지 않아요. 뭉키가 죽었어도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왜 복제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실제로 4살부터 홍콩에서 사온 판다 인형을 11살 때 잃어버렸었어요. 저도 어머니께서 똑같은 인형을 사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럼 저는 판다 인형에겐 뭐라고 말할까요? 새로 산 그 인형은 저의 손때가 묻고, 추억이 담긴 잃어버린 인형과는 다른 인형인데… 마음은 아팠지만, 잃어버린 인형을 생각해서라도 새 인형을 절대 사지 않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잃어버린 인형을 생각하면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의 애착 인형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 판다 인형에게 너무나 미안해서요. 잃어버린 저 자신을 원망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화내고 울어도 그 인형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또 저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인형을 깨끗하게 보내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느낀 것은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추억과 생각만 남겨놓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다 인형을 추억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딱지 학교

부마초 6학년 강하연

저는 ‘전설의 코딱지’를 읽고 가장 먼저 우리 학교 글향기 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수학 도둑’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쪽수가 적혀 있는 부분에 왕 코딱지가 붙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은 저희 반에 손 소독제 밑에도 코딱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전설의 코딱지’를 읽고서 제가 찾은 두 개의 코딱지라는 생각이 들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학교인 부마초등학교에는 7개의 전설을 코딱지보다 100배 더 많은 700개의, 전설의 코딱지보다도 더 많은 코딱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마초등학교는 코딱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딱지가 많은 깨끗한 학교라고도 생각합니다.

자녀의 마음

부마초 6학년 곽아인

내가 이 책의 표지를 처음 봤을 때 그림책이면서도 글씨만 있고 그림이 많이 없어서 재미없어 보였다. 하지만 읽다 보니 첫인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 ‘평범’이란 무엇일까?

나는 너무 많지만 적지도 않은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인 너무나도 평범한 공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까막까치들이 와서 ‘공주는 너무 평범해’라면서 왕을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잉어가 왕에게 자신의 수염 3가닥을 준다. 수염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뤄지는데 그 대신 왕은 더 늙고 쪼글쪼글해진다. 그렇게 왕이 소원을 빌면서 생기는 일들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그림체가 동글동글하여 귀여웠고, 까막까치들이 공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책을 보낸 내내 공주가 안타까웠다. 왕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공주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나는 왕의 마지막 소원은 왕, 공주가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왕이 공주의 어느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라딘

부마초 5학년 김산

어느 날 임금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주가 얼굴이 못생겼지요. 그래서 임금님은 제 발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굴엔 낡은 램프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그 램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베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다음날 '빅스비'라는 요정이 나와 소원을 3개 들어준다고 했어요. 임금님은 바로 3개의 소원을 빌었어요

이 동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공주가 예뻐지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빅스비는 바로 3개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공주는 임금님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서 병에 걸렸지요. 그때 빅스비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소원을 취소하고 다른 소원을 빌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2번 소원을 취소하고, 공주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공주님과 임금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부마초 6학년 김서준

김동식 작가의 「강아지 복제」를 읽고 나니, 친구에 관한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다. 내가 5, 6살 즈음 유치원 시절에, 우연히 한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쩌다가 가깝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친구와 제일 친해지고 난 후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우린 그 친구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는 삼총사가 되었다.

하지만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에 왜인지 친구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못 해서 아쉽고 미안했다. 시간이 지나 9살쯤에 그 삼총사 중 한 명의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비록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금방 다시 친해졌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강아지 복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강아지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읽었을 때, 삼총사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다. 언젠가는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금님은 왜 그럴까?

부마초 5학년 김연우

앵커 : 너무너무 공주에 나오는 임금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다W 팀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장에 계신 까막까치리포터 연결해주세요~

까막까치 : 네 까막까치입니다.

기자 :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까막까치 : 지금 궁전 앞 잉어 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잉어 님을 바라보며) 잉어님, 왜 임금님께 털을 주신 거죠?

잉어 :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까막까치 :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잉어 님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계시는데요

저기 마침 임금님이 오고 계십니다.

임금님 : 어...어!! 오지 마세요~!!

까막까치 : 임금님 왜 소원을 예뻐지라고 빌었나요?

임금님 : 저는 공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까막까치 : 지금까지 현장에서 까막까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그것이 궁금하다W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복제, 하실 건가요?

부마초 6학년 김지우

책 「강아지 복제」를 읽고, 할머니께서 키우셨던 강아지 '앵두'가 생각났다. 나는 앵두를 만난 2013년부터 앵두를 가족보다 사랑하고, 친구와 있을 때 보다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왔다. 항상 나만 반기던 앵두가 18년의 강아지 인생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 죽었을 때, 모두가 나만 빼고 장례식을 다녀왔다. 그러다 할머니 집에서 우연히 '앵두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왜 나만 빼고 장례를 치렸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정말 복제라도 해서 만나고 싶었다. 너무너무 허전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 졸졸 따라오던 내 하나뿐인 강아지가 죽은 데다, 모두가 날 배신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가족들이 '앵두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다고, 네가 울면 앵두도 슬퍼할 거다'라며 위로해줬다. 그때부터 난 물고기를 키우고 있다. 이 물고기의 수명은 고작 2년 이하지만,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키우고 있다. 「강아지 복제」에 나온 것처럼, 만약 그때 내가 앵두를 복제했다면 앵두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난 아직도 복제 당하지 않은 앵두의 마지막이 더욱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수달이

부마초 6학년 서지후

저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형과 같이 지냈습니다. 낮잠을 잘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인형들과 함께였습니다. ‘수달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어주고 더러워지면 닦아주고 같이 놀았습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갈 때도 가방에 꾸깃꾸깃 집어넣어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가장 소중한 인형이었던 ‘수달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수달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달이는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이사 갈 때는 찾을 수 있을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몇 년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달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미안해, 수달이는 없어.”라는 엄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수달이와 똑 닮은 인형을 사 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수달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생긴 수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달이에게서 나던 특유의 비누향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달이의 몸에 있던 까만 점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수달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같고, 같은 곳에서 샀다고 해도 진짜 수달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달이는 아니지만 나의 새로운 인형을 좋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 저는 무엇을 복제하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부마초 6학년 여수민

「강아지 복제」를 읽고 제일 먼저 나의 반려 식물과 마리모들이 떠올랐다. 가족들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인 반려 식물과 마리모 두 마리가 죽는다면 정말 슬플 것 같다. 그래서 주인공이 느끼는 슬픔과 강아지를 복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는 복제를 반대한다.

어릴 때 나는 몇 마리의 달팽이들을 키웠고 정말 아끼고 좋아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달팽이들이 죽어서 너무 속상했고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 한 곳에는 달팽이들의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그만큼 그들을 아끼는지 몰랐었다. 그러나 달팽이들이 자리잡았던 곳엔 이제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 나의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

나처럼 연우도 강아지의 DNA를 복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 비어버린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달팽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듯이, 그리고 내 곁을 떠난 후에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 마음을 채웠듯이 연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 책에서 몽키가 연우를 물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몽키가 뭉키의 복제본이 아니고 가족은 복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난 몽키가 연우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동생’

부마초 6학년 윤하준

내 동생은 힘이 세다. 그래서 일방적으로는 내가 지지만, 내가 격노할 때면 동생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에 많이 울어봤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동생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는다. 이제 동생은 나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요괴 육아」 속 수현이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의 나와 비슷한 것 같다. 물론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빼고 말이다.

수현은 아이를 깨우기 위해 힘썼는데, 나라면 요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물에 밥 말아 먹는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요괴 육아」를 읽으니 역시 내 동생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

부마초 6학년 전지환

저는 저의 단짝 친구들인 서준이, 지후, 근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자주 만나서 놀고, 먹고, 웃고, 떠들고, 게임을 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추억이 있지만 가장 특별했던 추억은 전주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KTX를 타 보았고 그 안에서 보드게임을 했는데 2시간이라는 시간이 2분처럼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십 원 빵과 슬러시 등을 사 먹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재정비를 한 후 다시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야경이 유명한 전주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들은 그 해, 저의 인생 사진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다시 돌아와 씻은 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들에게 허락을 받아 1시간 게임도 했습니다. 서준이와 내가 한 팀, 지후, 근우, 동생이 한팀이었습니다. 처음에 서준이와 나는 자신만만했고, 그 모습을 본 상대 팀은 복수를 다짐했는데 결국 우리가 계속 져서 슬펐습니다.

한옥에서 잠을 자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덥고, 건조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 덕에 돌아오는 KTX에서는 곰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소원

부마초 5학년 조연서

나는 임금님이 공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탓에 더 나은 모습이면 어떨까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소원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게 공주에게 해가 되었다는 걸 느껴 마지막 소원을 빌었던 거 같다.

어떤 소원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부모의 마음으로 마지막 소원을 빌었을 거 같다. 딸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다. 조금이라도 괜찮아질까,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싶어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 보면 희생하는 게 아닌 사랑하는 마음 같다. 난 그런 임금님이 대단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을 돋는 게 인상 깊었다. 또 까치들이 짧게 노래하는 포인트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같았다.

이 책의 주인공은 공주님, 임금님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짧은 동화책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

핵심키워드 : 부모, 소원, 마음

반려동물 복제는 안 된다!

부마초 5학년 주현준

연우는 나이든 뭉키가 죽어도 계속 뭉키와 함께 하길 바라서 뭉키의 DNA를 추출해 뭉키가 세상을 떠난 후 뭉키의 DNA로 뭉키를 복제한다.

이렇게 연우가 복제한 뭉키는 연우와 같이 살았던 뭉키와는 많이 달랐다.

나는 연우처럼 반려동물을 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심을 채우려고 다른 생물에 인격체를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은 뭉키가 그리워서 복제한 것은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반려 곤충인 사슴벌레를 키웠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하지만 요셉이가 죽은 뒤 나도 요셉이가 그립고 다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심 때문에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우가 뭉키가 죽고, 자신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 복제한 것은 내 경험 때문에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사심을 채운다고 반려동물을 복제해 다른 생물의 인격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무제

부마초 5학년 최주희

나는 오늘 108요괴의 수염이라는 주니어 소설을 읽었다.

나는 이 책에 있는 단편소설인 시험지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시험지 게임’을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다. 왜냐하면, 정답을 억지로 만들어서 점수를 받았다. 나는 이것을 보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뒷부분을 보니 하율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정답을 만들어내니 웬지 너무 억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시험지 게임에서 왜 하율이가 백 점 시험지를 우물에 버리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95점이 최대인데 하율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100점을 우물에 버리려고 하니까 웬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난 ‘시험지 게임’이 좋은 내용인 거 같아서 참 좋았다.

강아지 복제 독후감

부마초 5학년 한건영

강아지를 복제한다는 상상력, 재미, 다 좋았다. 나는 강아지를 못 키워봐서 더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 [DNA가 같은 뭉키] 이런 부분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강아지를 복제하면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장점은 강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강아지가 복제될 때 기억도 함께 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제 강아지가 기억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강아지 복제’라는 이야기 전체가 재미있었다.

또 읽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재미있었다.

